

호남지방 콩재배지(2모작) 노린재류(Stink Bugs) 발생양상 및 방제법 구명

이건휘, 백채훈, 김두호, 나승용

호남농업시험장 식물환경과

우리나라 콩 재배면적 86천ha중 호남지역의 재배면적은 전국 대비 50%이며, 최근 들어 콩 재배지가 단지화 되고 연작 재배됨에 따라 해충발생이 다양화되고 발생량도 증가되고 있다. 그 중에서 노린재류의 발생과 피해가 가장 심하였으나 이들 노린재류의 발생생태 및 방제기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포장에서의 발생양상 및 방제법을 구명하였다.

콩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노린재류는 툽다리개미허리노린재(*Riptortus clavatus*), 풀색노린재(*Nezara antennata*), 알락수염노린재(*Dolycoris baccarum*) 등 7종이며, 툽다리개미허리노린재, 풀색노린재, 알락수염노린재 순으로 발생 및 피해가 많았다. 노린재종류별 발생시기를 조사한 결과, 풀색노린재는 7월 중순, 알락수염노린재는 9월 중순부터 발생되기 시작하여 각각 9월 하순~10월 상순에 발생량이 가장 많았으며, 툽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8월 상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9월 중~하순에 발생량이 가장 많았다. 툽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약제방제시기 및 횟수는 콩 착협기부터 10일 간격 3회 처리시 방제가가 91.2%로 가장 효율적이었다.